

世界 石油市場과 去來形態

I. 머리말

石油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原油의 생산, 精製, 판매에 있어서 한 石油會社의 공급 가능량과 고객이 요구하는 各製品 別 수요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各製品의 판매량은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코스트와 공급량에 있어서 競爭하는 다른 燃料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송의 遲延이나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原油의 공급과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성도 항상 존재한다.

石油會社는 이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 原油와 제품을 때에 따라 사고 팔고 교환하기도 한다. 제품의 賣買는 그 당시 시장의 수급상태에 맞추어 하는데, 原油를 매입할 때는 精油會社가 顧客이 요구하는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기에 맞추어 보다 유리한 조건의 原油를 選擇해서 구입한다.

현재 世界市場에서 거래되고 있는 70종류 이상의 原油는 각각 化

學的 成分이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選擇購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原油를 精油會社에서 정제하면, 原油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油의 종류에 따라 생기는 各製品의 收率이 다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原油를 정제하는 것보다 B라고

하는 原油를 精製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상황은 당연히 생긴다.

트레이딩은 수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 이외에도 石油産業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役割도 한다. 트레이딩에 의해 石油의 수송거리가 단축되거나 각지의 정유공장 稼動率이 높아지게 된다면 트레이딩이 경제적 役割도 하게 되는 셈이다.

II. 長期契約과 스파트契約

各社마다 수급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나, 2가지 거래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하나가 長期契約이고 다른 하나가 스파트契約이다. 장기계약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것으로, 과거에는 3년간이나 되는 장기간의 契約도 있었으며, 가격은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價格도 기간도 상당히 彈力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스파트契約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격에 대한 합의를 보면 즉시 카고(CARGO)를 買入하거나 賣渡하는 거래이다. 카고는 이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해상의 탱커에 적재된 것이 去來對象이 되기도 한다. 長期契約의 목적은 안정된 공급 확보에 있으며, 스파트去來는 공급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가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스파트契約과 長期契約의 비율을 엄밀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파트契約이 대상이 되는 카고는 도중에서 여러번 轉賣되어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販賣量은 팽창된 數字를 보이게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언젠가는 브렌트 原油(北海)가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56회나 轉賣되었다는 보고

도 있다.

최근에는 스파트價格이 公式販賣價格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스파트去來에 관심을 갖는 바이어가 점점 늘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賣渡되는 石油의 30%가 스파트契約으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石油 트레이딩의 상당한 부분은 아직 長期契約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 실제로는 長期契約에 의한 많은 거래도 一定條件을 설정함으로써 스파트市場의 영향을 상당히 감안하고 있다. 예컨대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의 스파트價格에 가깝게 체결하거나, 契約期間中에 石油價格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미리 삽입

해 두는 것 등이다.

原油와 石油製品의 트레이딩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原油의 트레이딩은 대부분 產油地에서 행해진다. 즉 原油는 產油國에서 매입되는데 그 특정 브랜드의 原油는 카고가 어느 나라에 수송되는 것이라도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石油製品은 대부분이 主要消費地에 건설된 정유공장에서 出荷된다(그러나 產油國에 건설된 정유공장이 점점 늘어, 곧 稼動할 예정인 정유공장도 있다). 出荷된 單一製品을 선적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石油製品을 함께 船積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의 품질도 다른 때가 있다.

실무면에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반면에 財務上의 단점을 안고 있었다. 만일 카고에 送狀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引受, 引渡의 지연이나 不履行에 대한 補償을 받기가 곤란하다. 이런 방법은 1개 交換協定에 겨우 2~3社의 石油公社가 관련되고 있었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 탱커 1雙分の 石油價値가 엄청난 금액으로 상승하고 시장에 소규모 트레이더가 많이 참여하게 되자,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오늘 날엔 交換去來協定이 기피되고 있으며, 교환협정의 대부분은 損害를 입을지도 모르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賣買契約으로 대체되고 있다.

Ⅲ. 트레이딩의 增大

1970년대의 초기부터 石油의 트레이딩이 증대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메이저의 一貫供給體制가 점점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기에 7대 메이저는 소련, 東歐, 中共을 제외한 세계原油의 60%를 상회하는 생산 권리를 쥐고 있었으나, 현재는 30% 이하에 불과하다. 메이저 이외의 民間公社가 갖고 있던 所有 퍼센티지도 역시 떨어졌다.

한편 그동안 產油國 정부는 차츰 지배력을 확대하여 生産세어를 증가하게 되었다. 產油國의 생산세어는 第1次 石油危機前에 겨우 9%였으나, 지금은 全世界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產油國은 自國의 原油판매량의 分散化에 힘써 왔는데, 이것이 수요의 급격한 低下와 더불어, 原油바이어에게 있어서는 더욱 自由載量

이 큰 시장, 또한 그들이 短期契約을 원하는 시장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1950년대 초기에 메이저는 自社の 剩餘 또는 부족한 石油를 트레이딩에 의하지 않고, 메이저끼리의 교환거래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輕質原油가 필요한 石油會社は 自社の 剩餘重質原油와 교환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경우, 이들 2개 회사는 서로 送狀(인보이스)을 보내서 出荷 때마다 決済를 하지 않고, 부족분을 상대방에게 出荷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만일 이 交換去來協定에서 최종적으로 차액이 남는 경우에 비로소 조정을 했던 것이 다.

1. 去來의 保證

送狀에 의하지 않는 교환거래는

이러한 교환협정을 기피하는 경향은 「거래는 돈이 은행에 入金되어야 비로소 완료한다」라고 하는 格言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거래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契約當事者는 여러가지 형태의 保證을 받으려고 힘쓰는 것이다.

原油가격이 상승하여 1회의 카고 금액이 \$5,000만에 달하게 됨으로써 賣主側은 당연히 買主側의 지불능력을 잘 알아봐야 한다. 賣主側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買主側에 信用狀의 개설을 요구하게 된다. 信用狀은 買主側이 금전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은행이 지불을 하겠다는 條件付 보증이다. 대부분의 거래는 信用狀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무조건 신용거래가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신용이 두터운 회사뿐이다.

한편 買主側의 입장으로는 船荷證券의 취득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船荷證券은 當該船荷에 대

한 소유권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실제로 船積된 화물의 明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해 船荷證券을 받지 못하면 買主側로서는 賣主側이 계약을 올바로 이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 대개 保證狀(대부분의 경우 銀行保證狀)을 청구한다. 이것은 賣主側이 買主側에 대해, 船荷證券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保證狀이다.

2. 商去來의 實施

트레이더란,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어떤 카고의 판매 또는 購買契約를 하는 거래자를 말한다. 여기서 취급되는 카고는 現物 상품으로, 트레이더는 그 契約履行上, 도의적, 법률적인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거래형태는 back-to-back 去來, 다시 말하면 賣主와 買主가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의 거래이다. 이러한 결정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트레이더는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상품을 떠맡아서 저장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일도 있다. 반대로 이미 체결된 판매계약을 이행해야 할 상품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엔 스파트市場에서 구입해야 한다.

購買者없이 특정한 상품의 買入에 합의한 트레이더는 「購買所有(long position)」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장가격이 상승세일 때나, 상승이 전망될 때는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세일 때 트레이더는 될 수 있는대로 契約履行期間에 가까운 날짜까지

다리면 싼 값으로 상품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판매계약을 해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판매를 「販賣所有(Sell short)」라고 말한다. 시장정보에 정통하고 위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능력을 갖는 것이 거래성공의 열쇠이다.

브로커(仲介業者)에 의한 商去來活動은 또 다르다. 브로커는 거래중의 카고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는 일은 없다. 브로커는 手數料를 받는 仲介業者로, 상품이 어디있고 願買者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서 賣主와 買主 사이를 중개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브로커는 商去來上의 위험부담이 없다.

石油의 거래에서 브로커의 중개료는 賣主가 지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관례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왜냐하면, 買主가 브로커에게 특정한 상품을 찾아 달라고 의뢰함으로써 거래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브로커는 시장의 情報源 역할도 한다. 브로커는 거래상 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며, 仲介料를 받는 대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60년대 초기에는 原油나 石油製品에 관심을 갖는 트레이더의 수는 얼마 안되었을 것이고, 브로커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가 증대하고 공급이 분산함에 따라서 이 분야에 진출하는 會社가 증가했다.

1975년부터 1974년에 걸친 第1次 石油危機동안 石油에 대한 관심은 단숨에 높아져, 당시 原油와 제품을 입수할 수 있는 연줄을 갖고 있던 회사의 사업은 好調를 보였다. 1970년대말에 일어난 第2次 石油危機때에도 사정은 변하지 않

았다. 그러나 2회에 걸친 石油危機 사이의 기간에 많은 트레이더가 파산의 쓰라린 맛을 보았다.

1970년대 石油市場의 추이에 따라 多國籍 石油會社도 점점 트레이딩에 깊이 관련을 갖게 되었다. 供給이 크게 產油國의 손에 넘어가자, 產油國은 石油販賣先의 分散化와 보다 대규모의 去來先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石油의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차츰 세련되고, 石油市場이 더욱 개방되어 전망이 좋아지자, 트레이더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찾게 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졌다.

3. 複雜해진 世界市場

이처럼 石油去來가 質的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의 거래형태는 10년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과거의 트레이더는, 예컨대 暖房用연료를 가을에 미리 구입해 두면 겨울에는 계절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石油거래를 복잡하게 만든 원인은 여러가지 있었으나, 큰 원인을 알아보면 石油産業이 石油會社로부터 產油國정부의 손으로 옮겨갔다는 점, 石油카고의 가치가 막대한 금액으로 상승했다는 점, 輸送코스트의 중요성이 감소된 결과 새로운 去來루트가 등장했다는 점, 과잉상태인 石油精製設備 그리고 獨立系 石油會社와의 치열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트레이딩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언제나 단순한 형태를 택하지는 않는다. 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제능력, 탱커, 貯油所의 이용을 契約履行上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때도 있다. 委託精製契約는 精油會社가 의뢰인의 原油로부터 石油製品을 제조하는 일을 請負맡는 계약인데, 이것이 단순히 제품을 買入하는 것이나, 또는 精製·貯油設備에도 투자하느냐를 고려하여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도 있다.

4. 精油工場의 Feedstock

과거엔 石油제품의 원료로 原油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새로운 경향은 Feedstock(原料油)이 精製原料로서 등장, 그 사용이 대폭 증대하고 있다. Feedstock의 처리는 精製業者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것이다.

Feedstock의 처리로 高品質化裝置(up-grading facilities)의 操業度를 올려 燈油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Feedstock의 한 가지로 常壓蒸留에 의해 생기는 常壓殘渣油가 있으며, 여기서 輕油를 별도로 뽑아낼 수가 있다. 常壓殘渣油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熱分解裝置를 갖고 있어야 하며, 단순한 常壓蒸留裝置로는 常壓殘渣油를 改質해서 고급제품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常壓殘渣油

를 분해할 수 있는 정유공장과 할 수 없는 정유공장 사이에 트레이딩을 하게 되었다. 西歐에서만 연간 약 1,300萬톤의 常壓殘渣油가 현재 이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가지 형태의 Feedstock은 컨텐세이트로, 어떤 특정한 天然가스 貯留層內에 있는 液狀의 炭化水素이다. 어떤 컨텐세이트는 납사와 매우 비슷하고 또 어떤 컨텐세이트는 超輕質原油와 비슷하다. 컨텐세이트의 구입이 요즘 용이해진 이유의 하나로 OPEC의 原油생산 割當中에 컨텐세이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OPEC 회원국 중에서 컨텐세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은 정해진 原油의 生産割當量에 관계없이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 Feedstock은 제조상의 특질과 採算上의 매력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Feedstock과 마찬가지로, 이 2가지의 시장가격도 재래의 原油와 石油製品 가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原油나 留出油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精油會社에 있어서 殘渣油나 컨텐세이트를 처리하는 이점이 없어져 프리미엄도 감소할 것이다.

가 적고 金融, 선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로테르담市場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매매는 로테르담은 물론, 함부르크, 런던, 로마, 파리, 휴스턴, 뉴욕, 東京으로부터의 거래에 의한 것이다.

트레이더가 얼굴을 맞대고 거래하는 장소는 스파트市場에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장소가 있는 편이 편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서로가 기준이 되는 地點을 설정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래교섭은 용이해진다. 또한 제품의 品質規格을 정할 수 있으면 트레이딩은 引受引渡期日과 價格問題만으로 좁혀진다.

스파트市場에는 여러가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메이저, 獨立系 등의 石油會社는 정유공장의 수급에 스파트市場을 이용하며 非메이저系的 販賣會社나 공급업자도 購買에 이용한다.

스파트市場의 所在地

스파트市場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 세계 각지에 있다. 유럽에서는 로테르담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美國에는 멕시코灣과 뉴욕灣의 兩市場이 있다. 아라비아灣도 스파트市場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極東에서는 싱가포르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石油製品의 스파트市場이 성립되는 最大要因은, 現地市場의 수요를 상회하는 精製能力을 지닌 정유공장群이 존재하는 일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현지의 수요 充足量보다 훨씬 큰 정제능력을 갖고 있는데, 정유공장은 당초 수출을 목적으로

IV. 스파트市場

엄밀한 의미로는, 스파트市場에서의 石油賣買를 「市場來行爲」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市場」이란 원래 트레이더가 販賣注文과 購買注文을 서로 성립시켜 주기 위해 會合하는 장소인데, 石油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예컨대 로테

르담의 스파트市場에서 거래하고 싶은 경우에도 로테르담에 직접 갈 필요가 없다. 이론상으로 트레이더는 電話와 電信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장소라면 세계 어느 곳에 사무소를 차려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時差上의 문제

건설된 것이었다. 또한 카브리해에 있어서도 알바, 큐라소, 그랜드 바하마, 트리니다드 諸島에 있는 수출용 정유공장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을 기반으로 한 스파트市場이 성립되어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

로테르담 시장

세계 최대 港灣으로서의 로테르담의 지위와 人口稠密한 沿岩지역을 갖추고 있는 지형은, 각메이저가 경쟁적으로 이곳에 정유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이 지역의 대규모 石油精製能力은 로테르담을 石油市場의 중요한 지위로 끌어 올렸다.

이밖에도 獨立業者가 제공하는 貯油施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로테르담이 유럽의 최종 수요자 市場에의 주요 바이저 輸送 出入口라는 점 등이 수출업자에게 있어서 큰 매력이었는데, 특히 소련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初期 西獨, 스위스, 베네룩스 3國의 石油製品수요 증대는 마치 磁石처럼 온갖 規模 會社의 石油去來를 로테르담으로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로테르담은 石油製品의 기준가격을 이루는데 적합한 장소가 되었다.

뉴욕시장

로테르담과 같은 이유로 뉴욕港灣市場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곳에서 美國東海岸 연안지대의 방대한 石油製品의 수요를 배경으로, 뉴욕市의 金融과 海運便, 수많은 石油貯藏시설이 있는 한편, 인접한 뉴저지주에는 제품의 需給 밸런스를 이루는 정유공장이 있다.

뉴욕市場에서는 發電用과 燃料用제품이 거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營業用빌딩의 暖房用 수요부문에서 天然가스와 水力發電의 힘은 미미해서 경합이 안되기 때문이다. 거래면에서 멕시코灣沿岸地帶과 카리브海上 美國東海岸지역의 주요한 공급지이기 때문에, 탱커에 의하거나 파이프라인 이거나 輸送코스트가 멕시코灣, 카리브海, 뉴욕 등 스파트市場間의 가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各 地域間 需給동향을 잘 파악함으로써 트레이더는 카고를 생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 수송하는 운임을 상회하는 이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뉴욕市場에서 거래하는 것은 美國의 去來業者뿐만이 아니다. 최근 數年來, 北西 유럽과 美國東海岸을 잇는 루트가 새로운 商域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점에서의 市場評價價格(assessments)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트레이더가 소량의 거래를 해서 가격을 변동시켜 그것을 Platts의 時勢欄에 반영시키려는 企圖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市場操作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다.

Platts와 같은 專門紙에 게재되는 스파트市場時勢는 예상보다도 廣範圍하게 이용되고 있다. 長期契約去來, 특히 정부가 관계하는 장기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로테르담 時勢의 과거數個月間 평균가격으로 결정되고 있다. Platts 紙面에 게재되는 그밖의 제품 예컨대 天然가스나 에틸렌의 계약이 로테르담의 石油製品時勢를 참고로 해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Platts와 같은 專門紙에 게재되는 것이던 販賣業者의 價格提示이던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市場價格이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한 일이다. 예를 들어, 去來時點에서의 實勢價格을 참조함으로써 財政當局은 메이저의 子會社間의 거래가 實勢價格으로 결정된 것이냐, 제멋대로의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냐,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정부가 간여하는 경우, 정부는 국내제품의 가격인상이 國際市場의 동향과 비교해도 타당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는 原油나 石油製品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는 그 販賣代理機關이 現行市場價格으로 정상적인 販賣를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市場動向의 예측

不振狀態가 深化되는 요즘의 經濟환경 속에서 유력한 정유공장은 原油處理計劃을 결정할 때 스파트

V. 市場情報의 重要性

모든 트레이딩에는 市場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가 없으면 자신을 갖고 商談을 할 수가 없다. 거래에 관한 情報은, 상업거래를 통해 개인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그 밖에 Platts Oilgram, Oil Buyers Guide, Petroleum Argus, 그리고 신문, 잡지에 게재되는 정보가 있다.

Platts는 스파트市場에서 활약하는 업자에 대해 취재하고 텔렉스나 뉴스레이터로 매일 情報을 보낸다.

Platts 自身 스파트市場의 수많은 이용자와 접촉하여, 최신 契約이나 거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市場動向의 要約紙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Platts 市場時勢를 그 시

價格을 고려하게 되었다. 최근 수년간 美國, 日本, 西歐의 정유공장은 設備能力의 과잉으로 인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가동률의 저하로 정유공장의 採算이 악화되고 있는 한편, 값이 싼 剩餘製品을 스파트市場에서 입수할 수 있다는 狀況때문에 精油會社나 販賣會社는 自社의 原油처리를 줄여, 他社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할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狀態에 몰리고 있다.

會社가 자체적으로 原油를 처리하는 것 보다 스파트市場에서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리려면 스파트價格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단기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시장동향을 예측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스파트市場時勢의 영향

業界의 일부에서는 Platts의 時勢欄이 거래에 이처럼 큰 影響力을 가져도 좋은 것인지 우려하는 소

리도 있다. Platts와 같은 專門紙의 정보가 잘못되는 경우는 去來數量이 매우 적을 때 생긴다. 이것은 확실히 方法論上의 문제이다. 스파트時勢에 있어서 紙面에 취급할만한 거래가 없다고 Platts가 판단하면, Platts는 전날의 가격을 그대로 게재한다. 그러나 시장이나 제품에 따라서는 새로운 거래가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世界各地의 스파트市場 時勢 모두가 로테르담의 스파트市場 時勢처럼 廣範圍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싱가포르의 스파트市場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계당사자가 專門紙에 게재된 싱가포르의 스파트時勢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해도 별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싱가포르와 카리브해의 정유공장은 自社製品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價格水準에 지표를 제공하는데 많이 참고가 되고 있다.

들면, 契約當事者인 賣主나 買主를 다른 第3者로 바꾸는 편이 어느 쪽에도 유리하다는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하는 일은 매우 곤란했다. 이처럼 融通性이 없는 先物去來의 형태를 더욱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할 필요성 때문에 先物市場이 고안되었다.

2. 先物市場

先物市場의 거래는 스파트去來나 장기계약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해진다. 專用建物안에서 代行人의 立會로 계약이 결정된다. 방법은 先物去來 시장의 去來許可證을 가진 代行人이 円形으로 마주보고 賣買雙方이 일치하는 線이 나올 때까지 큰 소리로 서로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매매의 진행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 일단 賣買가 성립되면 去來量과 가격이 즉시 공표된다. 그리고 賣買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電子揭示板이나 經濟紙, 業界紙를 통해 去來場외의 모든 관계자에게도 제공된다.

代行人이 거래하는 것은 先物契約이다. 取扱商品은, 가격 및 受渡될 期日 이외에는 표준화된 일정한 규격으로 되어 있다. 규격의 내용은 商品의 품질, 去來單位, 引渡場所 등이다.

先物契約과 先物市場은 거래중에 몇가지 다른 기능을 발휘한다. 생산자, 製品메이커, 수출업자, 輸入業者를 위해, 이것은 가격변동에 의한 不利益을 어떤 종류의 보험형태로, 즉 헷징(hedging)이라는 형태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先物市場은 投機家에게 시장동향을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VI. 先物市場

商品賣買 관계자에게, 價格變動에 대비하여 다소라도 보험적인 役割을 하는 기능으로서 先物市場이 생기게 되었다. 先物市場에서는 보험적機能에 덧붙여 투기적 賣買를 할 수도 있으며, 去來活動全体에 유동성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先物市場去來는 스파트去來나 長期契約去來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先物市場에서의 매매도 트레이딩活動의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다.

1. 先物契約

原料 공급에 장기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업자들, 예컨대 完成品の 製造業者들은 항상 안정된 가격으로 장래에도 原料購入을 확보해 두고 싶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던 방법이 先物契約이었다. 장래의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장래의 어떤 기일과 가격을 설정하고 공급이나 구입을 보증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先物契約은 운용면에서 柔軟性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第3者도 손해를 보았다. 예를

3. 헷징과 投機

先物契約의 두드러진 특징은 계약을 간단히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간단히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레이더에게 있어서나 이것은 안성마춤이다. 先物契約의 보지자가 製品現物を 賣渡하거나, 購買하는 대신, 같은 수량과 같은 決済日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購買하거나, 반대로 구입한 것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어, 최종적으로 제품의 引受, 引渡를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최후에 買入과 販賣間의 가격차에 대한 清算이 남는다. 이 相殺行爲의 시기는 시장의 동향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先物市場의 이용자가 현물, 現金去來契約에 先物市場에서의 거래를 가미하는 헷징의 기본으로, 先物市場과 現物市場의 價格이 시종 비슷한 동향을 나타냄으로써 헷징이 가능한 것이다.

같은 製品에서는 先物市場 쪽이 스파트市場보다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양쪽이 市況의 영향을 받아, 한쪽의 價格上昇은 상승쪽에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다른 쪽의 상승을 초래한다. 만일 어느 精製業者나 트레이더가, 代金支拂이 끝난 소유 중인 輕油價格이 하락하는 등 輕油市場의 전망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販賣헷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價格이 실제로 하락하면 同量의 輕油를 先物市場에서 구매계약을 하면 싸게 買入할 수 있어서 소유 輕油價格이 떨어진 것을 보충할 수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정가격으로 이

미 판매를 약속한 輸出業者나, 輸送코스트를 피하려는 輸送機關 등이 輕油의 상승 기미가 불안하면 購買헷지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輕油 買入의 先物契約을 미리하고 가격상승에 따라 같은 수량을 空賣하면 그 이익으로 現物去來의 輕油 코스트 증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先物市場의 효력은 원래 空賣와 空買의 기능을 이용함에 있는데, 先物市場에서 몇가지 제품외에 原油 거래도 上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이용방법도 나왔다. 原油를 매입한 精製業者는 그 原油를 처리해서 나오는 製品코스트를 계산할 수 있으나, 만일 先物市場에서 가격이 이 코스트보다 높으면 제품의 先物契約을 함으로써 확실한 이익을 확보할 수가 있다.

에너지의 先物市場은, 石油事業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자들을 위해 경영상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先物市場과 마찬가지로 投機家에게 찬수도 제공한다. 投機家は 石油産業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利害關係에는 관심이 없으나, 투기에서 고요한 위험을 배우고도 남는 매력적인 投資찬스를 찾고 있다. 이런 投機的 投資家에게 있어서 先物去來가 매우 안성마춤인 것은 거래에 필요한 자본이 少額이면 된다. 이 점이다. 일반적으로 投資家は 契約金額의 5%나 10%의 보증금만 내면 되며, 이는 有價證券類의 경우보다 훨씬 소액이다.

4. 先物市場의 所在地

1970年代 초기의 石油危機이래, 에너지의 先物市場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여러가지 있었다. 그러나 현

재 石油關聯製品의 先物去來市場은 세계에 4個所밖에 없다. Mckentire Exchange, 시카고 Board of Trade, 시카고 Mckentire Exchange, 런던에서 개설된 International Petroleum Exchange 등의 4개소이다. 계약 내용은 出荷地가 다르다는 등 몇가지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장기계약에 미치는 스파트市場價格의 영향에 대해, 지역에 따라서는 꼬리가 개를 휘두르고 있다」고 표현되는 상태도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의 先物市場이 활발해지자 흔들리고 있는 것은 꼬리털 1개뿐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先物契約의 引受引渡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先物市場의 동향은 價格에 상에 多大한 영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石油市場의 스파트 去來業者는 매일 先物去來가 시작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具體的인 결정을 한다. 先物市場에서 가격이 下落勢일 때는, 혹시 어디에 보다 값이 싼 상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現物市場에서의 구매를 보류하게 된다. 先物市場이 상승세일 때는 賣主가 보다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賣主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5. 差額 取得 賣買

差額取得賣買은 시장간의 價格差를 이용하는 거래행위이다. 운임이 引受引渡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에 따라, A라는市場에서 매입하여 이것을 B라는市場에서 판매하는 商行爲의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만일 北西유럽에서 자

動車회발유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뉴욕에서는 가격이 강세를 보일 때는 船荷를 大西洋의 동쪽으로 보내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差額 취득매매는 스파트市場과 先物市場間에, 또는 각각 다른 2개소의 先物市場間에서도 할 수 있는 거래이다. 이러한 장사의 기회를 잡으려면 각 시장을 잘 조사해서 賣

主와 買主間에 대폭적인 價格差異를 발견했을 때 장사의 기회가 생긴다.

세계의 石油業界가 현재 상태와 달라서 훨씬 안정되었던 시대에는 위험을 동반한 트레이딩은 별로 흥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石油危機를 계기로 트레이더가 생겼다. 한편, 石油會社는 잇달아 일어난 공급과잉과 스파

트價格의 하락으로, 장기계약에 의한 供給保證은 옛날처럼 의미가 없다는 신념을 깊게 하게 되었다. 만일, 1970년대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原油와 石油製品 供給業務 관계들은 과거 10년간에 얻은 教訓으로 인해, 트레이딩에 의해 이익이 생기는 기회만 臨機應變으로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 (週刊 石油뉴스)

□ 海外精油產業動向 □

장래 불확실한 싱가포르의 정유업체

중동의 정제시설 확장에 따른 경쟁격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공급과잉, 경제성장세 둔화, 에너지 절약등으로 싱가포르 정유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시련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싱가포르 석유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잉정제능력이다. 명목상 총정제능력은 1.1백만b/d이며, 이 중 약 15만b/d는 1970년 중반의 확장기 훨씬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서 이제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 정유사별 정제능력은 Shell 46만b/d, Esso 23.1만b/d, Mobil 20만b/d, SRC(Singapore Refining Co.) 17만b/d, BP(British Petroleum) 2.7만b/d이다. 80년대 초만 하여도 거의 완전가동상태에 있던 이들 정유소의 평균 가동률은 현재 약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싱가포르 정유소들은 주로 고품질의 중동경질 원유를 정제토록 건설된 것이나 가격상 중질원유가 유리해지면서 여타 여러 유종의 처리가 가능하게끔 설비개조가 진행되어 왔는데, Shell은 수소화 분해시설 2기를, 그리고 SRC는 접촉개질시설 및 열분해시설 각 1기를 건설하였다. 이에 따른 신축성 증대와 어디서나 인정하는 이 지역 정유소의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수요감소 때문에 정제능력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완전폐기는 아닐지라도 몇몇 정제설비를 예비시설로 퇴역시킬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이같은 시설감축계획은 사업상 비밀이긴 하지만 Shell은 4개 정제설비중 하나를 금년에 간헐적으로 가동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약 63만b/d 수준의 저생산하에서, 정유사들은 정

제요율 인하를 통해 물량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원유의 정제계약은 종전의 배럴당 90센트에서 최근 70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6.5만b/d 수준의 말레이시아와의 정제처리계약은 3년 기한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1986년 이후의 계속 처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점과 낮은 가격은 정유사들의 수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Shell과 중공의 Sino-Chemicals 간에 2만b/d의 중공원유에 대한 1년간의 정제처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적은 물량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2년전만 하여도 25만b/d에 이르던 싱가포르의 인도네시아 원유정제처리량이 이제는 8만b/d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에서 1985년 정제처리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2년내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산유국에서 가동될 신설 정유소들은 싱가포르의 큰 걱정거리로서, 이미 준공된 Balikpapan, Cilacap 및 Dumai의 인도네시아 정유소들은 현재 60%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6년경 완전가동에 들어가면 인도네시아의 총 정제품 생산량은 현재 40만b/d의 두배가 된다. 그리고 1986~87년까지 사우디에 3개의 수출정유소가 신설되고, 쿠웨이트에 1기의 정제설비와 2기의 고도화 설비가 준공되면 세계시장에 1.5백만b/d의 석유제품이 추가로 유입되게 된다. 이들 석유제품의 유럽으로의 수출은 EEC에서 부과하고 있는 현행 22%의 수입관세 때문에 제약받을 것이나, 극동시장은 이들 신규유입물량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